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취소...허탈한 군산시

해수부, 코로나19 사회적 감염 위험에 개최 않기로 최종 결론 시, "밤낮없이 매달려왔는데"...지역경제 회생 위해 연기 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군산에서 열기로 한 '2020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취소됐다. 어렵게 유치해 추진단을 꾸려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던 군산시는 허탈한 표정이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8월 13-16일 나흘간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감염 위험의 지속으로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매년 열리는 이 제전은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정식종목인 요트·핀수영·카누·철인3종경기를 비롯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볼거리·즐거거

리가 풍성한 해양스포츠 축제다. 군산시는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천혜의 고군산 군도 및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를 활용한 해양레저산업 저변 확대 및 해양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전방위 총력을 기울여 유치에 성공했다. 군산시는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에 기대되는 이번 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해양제전팀과 준비지원 추진단을 꾸리는 한편, 경기장별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참가자는 물론 관

객 등 안전을 위해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해 통보했다. 다만, 고용·산업위기 대응 지역인 군산시의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연기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밤낮없이 대회 준비에 매달려 왔기에 아쉽고 허탈한 심정"이라며 "군산경제 활성화 등의 당초 유지 목적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호남 최초 순국 의병 정시해 의사

고창 일광기념관서 추모제

호남 최초 순국 의병 일광 정시해 의사 114주기 추모제가 지난 11일 고창군 일광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 (사)일광정시해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인석)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일광기념사업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일광 정시해 의사는 양부모 상에 6년을 시묘한 효자선비로 스승인 면암 최익현 의병진의 중군장을 맡아 일본군과 싸우던 중 1906년 6월 11일 순창 전투에서 33세에 순국했다. 유림들은 해방 이후부터 '충효양전(忠孝兩全)의 사표'라고 규정하고 무장성에 의사비를 건립했으며, 고향 산태마을에는 충효비를 세우고 추모제를 지내왔다. 정 의사는 1874년 고창군 성송면에서 출생, 면암 최익현의 문하에서 수학하던 중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면암의 격문을 영남지방의 지사들에게 전하고 전국적인 의병활동의 중심에 선 고창의 대표적 애국지사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와 강천산 단월야행이 한국관광공사 추천 '여름시즌 숨은 관광지'에 선정됐다. 사진은 강천산 단월야행과 채계산 출렁다리.



(순창군 제공)

'거리 두고 떠나기 좋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강천산 단월야행

문화관광체육부·한국관광공사 '올여름 핫한 관광지' 선정

순창군의 '채계산 출렁다리'와 '강천산 단월야행'이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름 시즌 숨은 관광지' 6곳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6곳 가운데 전북은 유일하게 순창만 선정됐다. 14일 순창군에 따르면 '채계산 출렁다리'와 '강천산 단월야행'이 올여름 시즌 '거리 두고 떠나기 좋은 숨은 관광지'로 선정됐다. 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추천받은 855곳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지난 3월에 개통한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는 무주탑 산악 현수교로 길이만 270m나 돼 현존 최장 거리를 자랑한다. 높이 또한 지상에서 75-90m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찔함에 젊은 층들도 출렁다리를 많이 찾고 있다. 한옥 정자, 어드벤처 전망대 등 각각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는 섬진강과 적성 들녘 풍경도 채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한다. 주차장 인근에 조성된 농특산물 직판장에서는 청정 순창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과 각종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다. 채계산 출렁다리와 함께 숨은 관광지로 뽑힌 '강천산 단월야행'은 강천산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지난해 8월부터 군이 야간개장을 시작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최초의 국문소설 설경관전을 각색한 이야기에 화려한 조명과 AR 영상기술을 이용해 구간 곳곳에서 미디어 쇼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창=장영진 기자 jyg@kwangju.co.kr

관람 구간은 강천산 입구부터 천우폭포까지 1.3km이며, 어린이들도 친숙하게 느낄 도깨비와 용 등의 캐릭터를 활용해 만족도가 높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초·중·고교생 2000원이며, 만 6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다. 조태봉 순창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채계산과 강천산 말고도 순창의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 순창이 전북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진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한국체대 '맞손' 농특산물 활용 스포츠용품 개발

고창군과 국내 스포츠 인재양성 메카인 한국체육대학교가 손잡고 기능성 스포츠용품 개발에 나선다. 고창군과 한국체대는 지난 12일 군청에서 건강식품 및 체육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분자와 수박, 멜론, 체리, 발효 식초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스포츠용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분자와 수박 등은 갈증 해소에 좋고 함유된 과당·포도당이 피로를 빨리 풀어주면서 기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은 또 한국체대 선수들이 고창에서 전지훈련을 하도록 돕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시내버스 지·간선제 이르면 내년 도입

익산시는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간선 및 지선(순환) 노선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익산시내에서 합영, 금마, 여산 등 3개 접점지역을 오가는 간선 노선과 이들 도로에서 옹포, 성당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읍·면 소재지 및 마을을 연

결하는 지선 노선으로 구분해 운행하는 방안이다. 지선에는 이용객 수와 도로 형편 등을 고려해 중형이나 소형 버스를 투입한다. 익산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연말 안에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 치매안심센터 문 열어...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2일 문을 열었다. 정읍시는 37억원을 들여 금봉동에 지상 2층·연면적 975㎡ 규모로 센터를 지었다. 센터는 가족 카페와 검진실, 쉼터,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공무원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20여명이 통합관리, 치매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치매는 환자 가족의 문제라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